

# 국힘 ‘김기현 2기 체제’ 내홍...“국민 기대 크게 못미쳐”

### “수도권 상황 인식 의심”...사무총장 영남권 기용 우려 목소리

### 김기현 대표 “또 영남당” 우려 분출에 ‘혁신기구’로 돌파 시도

국회의원 당 안팎에서 ‘김기현 2기 체제’에 대한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 대표·원내대표에 이어 총선 공천 실무를 주도하는 사무총장에 영남권이 기용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TK(대구·경북) 재선인 이만희 사무총장 인선에 대해 “사무총장을 두고 김 대표가 많이 고민했다”며 “현실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가능하면 수도권 중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겠지만,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는 게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수석대변인을 지낸 유상범 의원이 SBS 라디오에서 현재 중진 의원 다수가 영남 출신이라는 점을 한계로 꼽으면서 “현장의 비판을 몰랐던 게 아니고, 교육정책으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예진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인선을 통해 수도권 내에서 1970년대생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 당직자 교체가 변화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고 2기 체제를 염호했다.

그러나 물밑에선 강서구정장 보선에 드러난 민심의 경고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은 자책골이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인사권자가 아닌 국민 입맛에 맞춰야 했다”고 김 대표를 직격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인사는 “선거가 급하고 어려울수록 당이 확장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인선 과정에서 그런 직언을 많이 했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

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전날 전일 지도부 인물이 다시 주요 인선안에 오른 적도 있었다며 “김 대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까지 수도권에 대한 상황 인식을 의심하게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비주류에서는 더 거친 반응이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들 보기에 ‘이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하는 평가”라고 비판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수도권에 사람이 없다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지형을 더 넓히지 않고 본인의 손바닥 내에서 쓰려고 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식으로 남겨뒀던 전략기획부총장 인선도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유력하게 검토했던 충청권 의원 기용이 무산되면서 원점에서 적임자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혁신기구 발족 등 새신안 마련에 전력 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내부 체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수도권 및 중도층을 겨냥한 총선 전략을 발굴하는 전담 기구를 꾸리겠다는 취지다.

아직 위원회, 태스크포스(TF) 등 구체적인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혁신에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수장을 맡게 될 것”이라며 “당 대표나 사무총장이 혁신 기구를 겸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백지상태에서 새 혁신안을 만들기보다는, 여야 정치권에서 그간 논의한 여러 혁신안 중



제104회 전국체전 탁구 여자 18세이하부 단체전 준결승 경기가 열리는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전남도민 응원단들이 출전팀을 응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공천 세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 검증한 뒤 이를 추진하는 형태로 활동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국힘 “대법원장 장기 공백 피해는 국민 몫”

### 민주당 사과 촉구

국회의원은 17일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고, 임기 만료를 앞둔 대법관 인선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대법관 전원회의의 결정을 거론,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우려된 후임 대법관 인선 차질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다”며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이로 인한 대법원 기능 상실을 초래한 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선거, 검증, 제청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대법관 회의 결론대로라면 2024년 1월1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안철상·민우숙 두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1월에 대법관 14명 중 11명만 남게 돼 재판 파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법관 연임 및 정기 인사와 관련해서도 중립성, 공정성 확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년 1월

1일까지 차기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하면 권한대행 역할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진보적 성향을 가진 김선수 대법관이 맡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이 지속된다면 고등법원, 지방법원까지 모든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이러한 졸속 재판 등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안 권한대행의 역할을 선임 대법관인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민변 출신에 진보적 성향이 뚜렷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제기됐던 ‘코드 인사’와 정치 편향적 재판 지연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의 사법 공백 사태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인위를 위해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입법 폭력을 휘두른 민주당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 권리를 인질로 한 사법 공백은 더 이상은 안 된다. 정쟁으로 인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윤 대통령 “우리 방위산업 무에서 유 창조 새 역사”

### ‘AEDX 2023’ 개막식 참석

### “한미동맹 압도적 역량 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EDX)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면서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라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의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한국산 무기를 예로 들었다.

또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세계 최정상급 전자인 K2 흑표,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이 된 전투형 보병장갑차

(IFV) 레드백,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언급하며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에 군 고위 관계자, 방산기업 최고 경영자, 바이어 등 57개국 116개 대표단이 참여한 만큼 ‘K-방산’의 우수성을 직접 홍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이제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 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의 성장 경험을 우방국들과 공유하면서 방산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리의 관건은 항공 우주 기술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라며 “우리 정부는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항공우주산업

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군 작전의 AI 디지털 기반을 가속화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ADEX에는 특별히 미군 전력도 함께하고 있다”며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온 한미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ADEX에는 스텔스 전략폭격기 B-1B 랜서,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22, 첨단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등 미국 전략 무기도 전시됐다.

한편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ADEX는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했다. 올해 14회째로 참가업체, 전시 면적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수목장(자연장)을 무료로 안치해드립니다.  
(회원에 가입 한 분에 한함)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